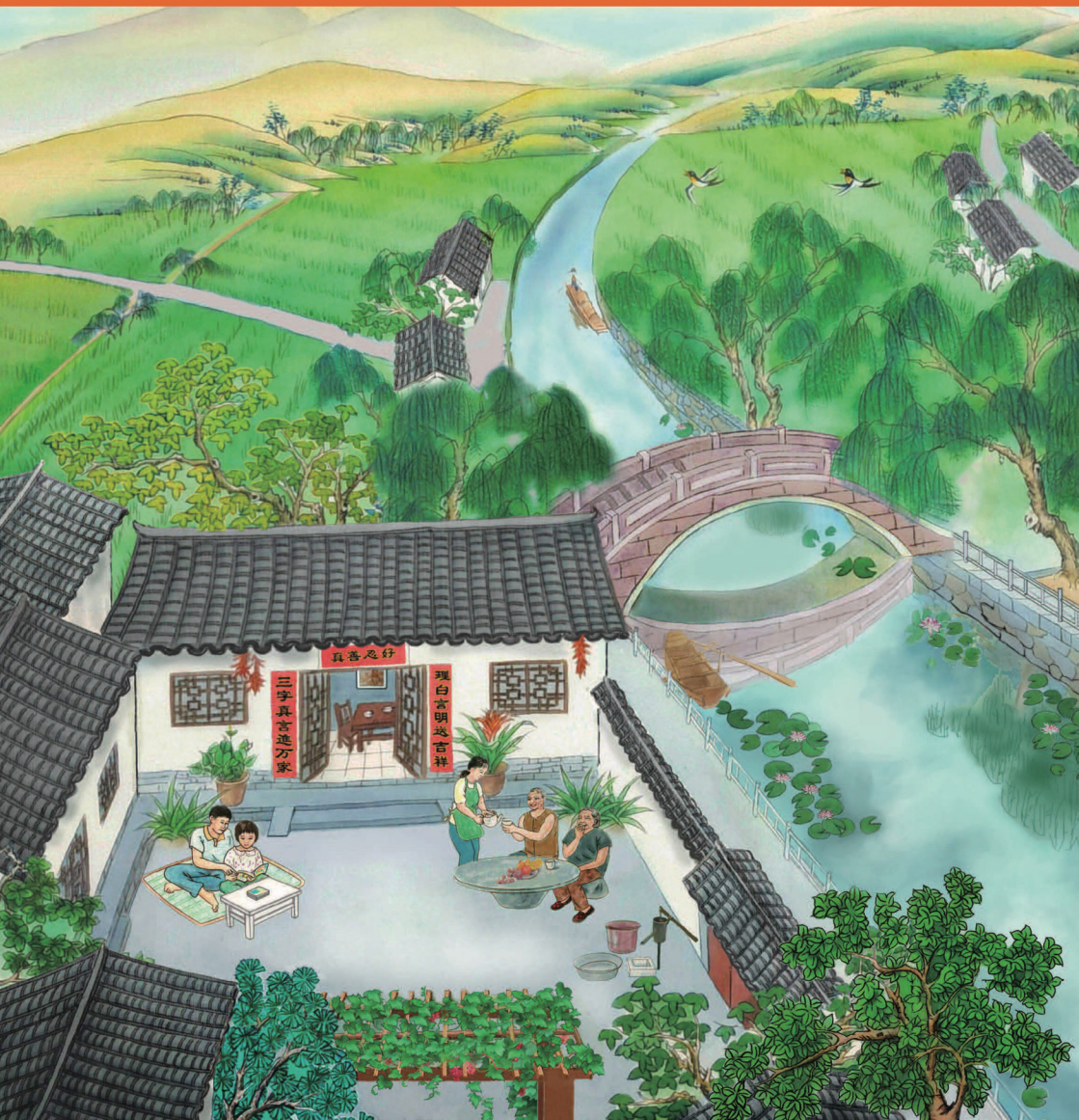
황금씨앗

제 48 호
2023 년 5 월

명혜망: www.minghui.org (인터넷 봉쇄돌파 프로그램으로 방문 가능)



목록

CONTENTS

명혜 간행물

황금씨앗

제 48 호

명혜 간행물은
사비로 편집 인쇄합니다
읽은 후 널리 전하시면
공덕이 무량합니다

리 대사님의 글을 읽고

독일의사 "저흰 성인을 만났어요" 2

내 고향 사람들

부처님 꽃이 핀 우리 마을 촌민들 복을 받다 4

전염병을 피한 행운아 6

신종 코로나 후유증 사라지다 7

덕을 쌓아가는 집

팔순 노인 복 쌓기와 건강의 길 8

손자가 자발적으로 휴대폰 끊다 10

세상은 넓다

절망에 빠진 주부에서 미소 천사로 12

청년 과학자 《전법륜》에 경탄 16

선악인과

청나라 이야기 : 곱사등 치료의 '밀방' 20

'청군입옹(請君入甕)' 고사를 기억해야 22

옛사람의 지혜

문광통(文广通)의 신선 동굴 여행 24

신께서는 종래로 우리를 떠난 적 없다 26

마음으로 알다

혜안으로 가짜뉴스 분별 28

선량함을 유지 29

입하 예의와 풍속 그리고 여름 양생법

"사계절 날씨는 급하게 서로 재촉하니 한 밤의 훈풍은 더위를 가져다주네. 섬서의 밭이랑은 날이 길어 청보리를 찌어내고 정원은 비가 지나간 후에 노란 매실이 익어가네." 이 고대 시구는 입하(立夏)의 정경을 여실히 묘사했습니다. 입하는 여름의 첫 절기로, 계절이 바뀌는 시간은 매년 양력 5월 5일에서 5월 6일이며 올해 입하는 5월 6일입니다. 입하는 여름을 알리는 표지로 이때 만물이 무성해지고 농작물이 성장해 왕성한 시기에 접어듭니다.

남방에서 여름 맞아 신께 제를 올리다

옛사람은 하늘을 공경하고 신을 믿었으며 입하의 예의와 풍속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입하의 이날 고대 제왕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남방으로 여름맞이를 떠났습니다.

《후한서·지·제사중》에는 "입하의 날 여름을 맞아 남방에서 적제(赤帝) 축융(祝融)에게 제를 올린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적제 축융은 하신(夏神)으로 신농씨의 보좌신입니다. 《산해경》에서 축융은 남방에 거주하며 불씨를 전하고 인간에게 불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기록했습니다. 민간에서는 입하에 오색 밥, 입하 계란을 먹으며 체중을 달아보는 등 풍습이 있습니다.

여름 양생은 심(心)을 다스리는 데 있다

《황제내경》은 "봄은 간장을 이롭게, 여름은 심장을 이롭게, 가을은 폐장을 이롭게, 겨울은 신장을 이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입하가 지나고 날씨가 점차 더워지면 심장에 이로워지고 혈액순환이 편해져 심장을 다스리는데 최적의 시기입니다. 중의학에서 '홍색은 심장으로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홍색 음식은 기혈을 보충하기에 여름에 앵두, 수박, 토마토, 자두, 붉은 대추, 팥, 홍당무 등 음식을 적당히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담담하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해 심화(心火)가 일어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여름 양생에서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면 '심(心)'이 상해 병근을 심어 건강을 해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독일의사
“저흰 성인을 만났어요”

파룬궁 창시자 리훙쯔(李洪志) 대사가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라는 글을 발표하자 독자들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독일 심리치료사와 미국 교수의 독후감을 들어보도록 하자.

카이우베 허스넥(Kai-Uwe Herthneck)은 독일 의학박사로 대학교 교수이자 심리치료사 일에 종사하고 있다. 그는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읽은 후 큰 전율을 느끼고 독일어 대기원 언론사에 독후감을 보냈다.

카이우베 허스넥 의사.

“인류의 마지막 시기에 저희는 성인이신 리훙쯔 대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는 저희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합니다.” 허스넥 박사는 “그분께서(리 대사)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사회는 매우 어지러운데 인간세상이 ‘멸(灭)’의 마지막 단계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많은 사람이 정신과 심리적으로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 인류는 심할 정도로 이미 진정한 윤리도덕과 지도원칙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는 오늘날 사람들은 선량함으로 나아가는 지남침을 상실했는데 리 대사께서 사람들에게 표준과 방향을 제시해주셨다고 했다. “파룬따파(法轮大法)는 인류에게 명확한 방향을 알려줬고 가르침을 제공했습니다. 파룬따파는 사람이 이지적으로 선(善)에 동화하도록 하며 사람들에게 우주와의 내적 연계성과 우주의 힘을 찾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로써 정신적인 힘을 얻어 무엇이 진정으로 좋은 것인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권력욕을 좇아가고 권력자가 되며 사치품과 금전을 추구하는 이런 모든 것이 사람을 타락하게 합니다.” 허스넥 박사는 리 대사와 파룬따파에 감사를 표했다. “다행히 파룬따파가 인류의 모든 일체가 우주 법칙인 인과응보에 기초한다고 밝혀줬습니다!”

마크 토마스 교수.

미국 대학 교수 “리 대사님의 글을 교학용으로 도입할 계획”

리훙쯔 대사의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라는 글을 네다섯 번 읽은 미국 필라델피아 라살대학 정치학 조교수 마크 토마스(Mark Thomas)는 대기원에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는 좋은 사람이 되며 계속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글에서 희망을 보았고 좋은 사람은 아름다운 미래가 있게 된다고 믿게 됐다.

토마스 교수는 다음 학기나 다음 해 교학에 리훙쯔 대사의 《왜 인류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라는 글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중이 리 대사의 이 글을 학습하면 많은 수혜를 입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부처님 꽃이 핀 우리 마을 촌민들 복을 받다

[중국 투고] 우리집 마당에는 대추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대추나무 잎에서 3천 년에 한 번씩 피는 우담바라 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이 상서로운 꽃을 발견하고 감탄했습니다!

저는 올해 78살이며 42살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딸 셋을 데리고 살았고 7묘(약 4600㎡) 밭을 경작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고통에 과로, 특히 심한 허리디스크에 시달려 말이 아니었습니다. 허리가 90도로 구부러져 걸을 수 없었고 밥도 지을 수 없어 살기 힘들다고 느껴졌습니다.

1998년 우리 마을에 파룬궁(法轮功)을 수련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파룬궁을 연마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따라서 배웠습니다. 당시 저는 마을 수련생과 함께 새벽에 파룬궁 5가지 공법을 연마하고 저녁에는 마음을 닦아 선을 향하게 하는 《전법륜(转法轮)》을 함께 학습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허리가 기적적으로 곧게 펴졌고 아프지도 않았으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해 촌서기는 공산당원들을 데리고 큰길 양쪽에 배수로를 팠는데 하루 일당이 60위안(약 1만 원)이었습니다. 날씨가 무덥고 일이 힘들어 며칠 후 누구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부녀 주임은 우리 수련생들을 찾아왔고 일당이 60위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나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일이 끝날 때까지 도왔습니다.

나중에 진(镇) 서기는 우리 마을에 와서 살펴보다가 우리 마을이 일을 가장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우리 마을 서기가 "우리 동네에 파룬궁 수련생들이 있어서 다행이에요"라고 하자, 진 서기는 매우 엄숙하게 "파룬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웃자 그도 따라서 웃었습니다. 촌 간부와 촌민들은 파룬궁이 좋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기만 하면 우리 마을 대법제자는 모두 자진해서 마을 앞 장터에 나가 눈을 쓸곤 합니다. 노점상들조차 "우리는 그쪽 마을에 가서 장사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눈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라고 했습니다. 한동안 마을에 간부가 없고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없자 대법제자들은 스스로 돈을 모아 차를 빌려 쓰레기를 밖으로 날랐습니다. 우리 마을 대법제자는 정말 마을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의 집과 촌의 여러 명 파룬궁 수련자 집에도 우담바라 꽃이 피었습니다. 불경의 기록에 따르면 우담바라 꽃이 피면 전륜성왕(转轮圣王)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법을 전하고 사람을 제도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파룬따파가 중생에게 복을 준 것에 감탄했습니다. 부처님의 꽃이 피어 우리 마을에 복이 다다른 것입니다!

■ 불경에는 "우담바라는 영험하고 상서로운 꽃으로 3천 년에 한 번 피며 그때 금륜왕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전염병을 피한 행운아

■ 글/ 덕한(德娴, 중국)

훙옌(鸿雁, 가명)은 젊었을 때부터 알고 지낸 동갑내기 친구다. 우리는 경력과 생활이 비슷해서 마음이 잘 맞았다. 각자 결혼한 후 아이도 생기고 생활도 바쁘다 보니 거의 만나지 못했는데, 나이가 마흔이 되니 여기저기 병이 생기게 됐고, 치료를 받았어도 별 효과가 없었다. 나중에 나는 파룬궁(法轮功)을 배워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다.

작년에 시간을 내어 훙옌을 찾아갔는데 오히려 전보다 더 병이 많아져서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그녀는 날 보자마자 "20년도 더 지났는데 넌 건강하고 정신도 맑은 걸 보면 파룬궁이 좋기는 좋구나"라고 말했다.

그녀는 중공 사당에 심하게 세뇌당해 사당 조직도 탈퇴하지 않고 있다가, 이후에 씬탕런의 '삶의 이야기(细语人生)' 시리즈에서 사탄교도 마르크스와 공산당의 관계를 알게 된 뒤 탈당 사이트에서 중공 조직 탈퇴 성명을 하고 파룬궁 수련에 들어왔다. 한동안 수련 후 훙옌의 질병이 하나씩 사라져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12월 전염병 대폭발로 수많은 사람이 입원했고 심지어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훙옌은 탈당하고 진상에 명백해져 신불(神佛)의 보호를 받아 무사했다.

훙옌은 부대에서 전역했다. 어느 날 그녀를 찾아갔는데 슬픈 표정으로 20여 명의 전우를 잃었다고 말했다. 전우들이 채팅방에서 그녀에게 괜찮은지 물었다. 모두들 전염병에서 무사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었다. 그러나 검사에서 양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전우들은 불가사의하다고 말했다.

삼퇴보평안(三退保平安)

2023년 4월 말까지 해외 글로벌 탈당센터를 통해 '삼퇴'(탈당, 탈단, 탈대)를 성명한 숫자가 4.12억 명을 넘어섰다.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삼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https://santui.tuidang.org 진심으로 탈퇴해야 하며 실명, 가명, 애명 모두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 후유증 사라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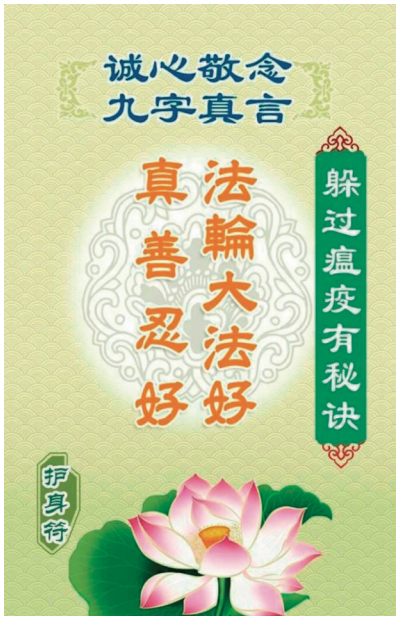
■ 글/ 커신(可馨, 중국 랴오닝성)

지난해 연말 전염병 해일에서 형수가 감염됐다. 열이 나더니 나중에는 심장과 신경에 통증이 생겼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었으나 이틀도 안 돼 통증으로 견딜 수 없었다.

형님은 서둘러 형수를 병원에 데려갔다. 겨우 전문의 문진 번호를 받았는데 의사가 말했다. "현재 우리 병원에 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신종 코로나 후유증으로 치료할 약이 없습니다. 돌아가서 먹고 싶은 거나 드세요."

저녁에 형님 집에 갔더니 형수가 눈을 감고 누워 있었으며 조카가 옆에서 울고 있었다. 형수에게 말했다. "어서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읊으세요. 대법 사부님께 구해주실 것을 청하세요. 이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좋은 처방입니다." 조카도 거들었다. "엄마, 읊어봐요, 저도 따라 할게요."

이튿날 저녁 다시 형님 집에 갔다. 그때 형수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말했다. "파룬궁 9자진언(九字真言)이 정말 영험하군



요. …… 어제 읊으라고 할 때 소리가 안 나와 속으로 힘을 다해 외쳤어요. '리훙쯔(李洪志) 사부님 저를 구해주세요.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 그렇게 속으로 긴 시간 읊다가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몸이 전처럼 아무런 증상도 없었어요. 대법 사부님께서 생명을 구해주신 것에 감사드려요!"

현재 형수는 대법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열심히 듣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좋아져 밥도 할 수 있으며 가족이 모두 즐거워했다.

팔순 노인의 복 쌓기와 건강의 길

[중국 산둥] 옛말에 이르길 '오곡을 먹는 사람이 어찌 병이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나도 이 규칙에서 벗어나지 못해 50여 세에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관상동맥 질환, 편두통, 무기력증, 유방 종양 등으로 사처로 의사를 찾아다니고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 고통이 말이 아니었다.

눈귀가 밝아지고 기억력이 손자보다 못지않아

1996년 연말 퇴직 후 연분으로 파룬궁(法轮功) 수련에 들어섰다. 연공한 지 6개월도 안 돼 정신이 맑아지고 전신의 병이 가뭇없이 사라졌다! 나는 곧 80세에 접어들지만 눈귀가 밝고 기억력도 아주 좋다. 비록 본 것을 기억하고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는 아니지만 외우기에 있어서는 손자들과 겨룰 수 있다. 심지어는 그들보다 더 빨리 확실히 외울 수 있다! 리훙쯔(李洪志) 사부님의 주요 저작《전법륜(转法轮)》,《홍음》다섯 권을 모두 외웠다. 20~25kg의 물건도 쉽게 들 수 있다. 바늘에 실을 꿸 때도 돋보기가 필요 없이 거뜬히 할 수 있다. 이 모든 건 대법 사부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과 지혜다. 대법은 이렇게 초상(超常)적이다!

이웃과의 두세 가지 일

《전법륜》공부를 통해 나는 진선인(真·善·忍)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며 일을 하면서 우선 다른 사람을 위해 생각해야 한다는 이치를 알았다. 겨울에 눈이 내리면 남편과 함께 제때 집앞과 이웃의 집 앞에 쌓인 눈을 깨끗이 치워 통행에 편리하게 했다.

마을 이웃이 양을 키우며 양 우리를 만드는데 통나무가 부족했다. 우리집에 그런 통나무가 있어서 그들이 돈을 내고 사려고 했다. 나는 그들이 생활상 경제 형편이 곤란한 점을 알고 "우리집에 있어도 쓸모가 없고 당신들이 급히 사용해야 하니 그냥 가져다 사용하세요"라고 말했다. 부부는 찬탄했다. "파룬궁을 배우는 사람의 인품은 정말 훌륭합니다!"

또 40여 세 이웃이 있는데 자궁암에 걸렸다. 병치료로 사처로 돈을 구하러 다녔으나 산더미 같은 빚을 갚지 못할 것 같아 친척들도 감히 빌려주지 않았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3천 위안을 들고 찾아가 건네주며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9자진언(九字真言)을 읊으라고 당부했다.

그녀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아주머니, 제 여동생도 저에게 빌려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집까지 찾아와 돈을 주다니요. 정말로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마음을 편히 하고 치료를 잘하세요. 이 돈은 급히 갚지 않아도 돼요. 대법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닦으며 곳곳마다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감사는 대법 사부님께 드리세요!" 파룬따파(法轮大法)로 나는 환골탈퇴했고 마음을 닦아 선한 사람이 되는 반본귀진(返本归真)의 길을 걷고 있다.

[중국 투고] 10대 손자가 전자게임에 빠져 성격이 거칠고 급하며 짜증이 많아졌고 성적도 떨어졌다. 급한 상황에서 선생님과 부모는 손자를 자주 때렸고 손자는 가출하려고 했다. 결국 며느리는 파룬따파(法轮大法)를 수련하는 할머니인 나에게 함께 살면서 손자를 봐달라고 부탁했다.

게임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손자

손자는 열네 살이며 어렸을 때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파룬따파의 주요 저서인 《전법륜(转法轮)》을 함께 읽고 전통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읽어주었다. 나중에 부모 집으로 돌아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손에 자랐고 점차 대법에서 멀어졌다.

1년 전쯤에 며느리가 전화로 아이가 게임에 중독되어 세뱃돈 1천여 위안으로 휴대폰을 샀다고 했다. 아이는 평소 피곤하고 수업 시간에 졸음이 많았으며 성적이 앞 수십 등에서 거의 200등으로 떨어졌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고 집에서는 부모에게 맞아서 아이는 심신에 큰 상처를 입었다.

아들은 매일 퇴근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아이를 꾸짖는 것이고 며느리는 옆에서 남편을 응원하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선생님은 매일 전화로 일러바쳤다. 손자는 선생님과 부모에게 반항했고 심지어 가출하고 싶어 했다.

할머니 선념으로 대법의 기적 나타나

이후 며느리는 나에게 집에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손자가 실제로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아이는 성격이 거칠고 급하며 짜증이 많고 마성이 강했으며 어른에게 반항했다. 하지만 손자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지적하기만 하면 손자는 똑같이 화를 냈다. 때때로 나도 참지 못하고 손자를 때렸다. 나중에 나는 매우 후회하고 손자에게 진선인(真·善·忍)대로 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손자가 어렸을 때 파룬따파를 수련하고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 시절을 회상하면서 《전법륜》을 함께 읽자고 했고 자고 있을 때 파룬따파 음악 '보도(普度)'와 '제세(济世)'를 들려줬다. 한번은 그가 유난히 피곤해하는 것을 보고 무릎에 눕히고 '파룬따파하오(法轮大法好)' 노래를 불러줬다. "파룬따파하오, 파룬따파하오, 파룬따파는 정법, 불광이 널리 비추네."

나는 손자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손으로 그를 부드럽게 토닥여 주면서 계속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이렇게 착한 아이가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낮잠에서 깨어나자 손자는 기뻐하며 "할머니, 저 정말 잘 잤어요! 너무 편해요!"라고 말했다.

손자가 휴대폰 끊고 성적이 수직상승

어느 날 손자가 파룬궁 5가지 공법 동작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연공을 시작한 지 20일이 지나자 갑자기 "할머니, 내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이 게임 앱을 지울게요"라고 말했다. 다음날 게임을 한 후 손자는 내 앞에서 자발적으로 게임 앱을 지웠다.

그러나 손자는 여전히 인터넷 동영상을 보았다. 나는 더 이상 손자를 상관하지 않고 단지 이따금 이치를 말했다. 20일이 지난 후 손자는 나에게 "할머니,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 내일 제 휴대폰을 드리고 더 이상 동영상을 보지 않겠어요"라고 말했다. 그 날부터 손자의 상태는 점점 나아지고 활기찼다. 두 달 만에 키가 커지고 몸무게가 늘었으며 성적도 급상승해 한 과목 시험에서 거의 만점을 받았고, 어느 날은 두 과목에서 백 점을 받기도 했다. 개학 시험에서는 70등 안에 들었다. 집안에 다시 예전의 화목함이 찾아왔다.

절망에 빠진 주부에서 미소 천사로

■ 최경순 씨는 한국 한방병원 간호과장이다.

글/ 김옥(한국)

최경순 씨는 국내 한 병원에서 간호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가정이 화목하고 직장에서 일 잘하고 있다. 환자의 항의, 간호사의 불만, 부서 간 다툼 등 여러 갈등이 있어도 최 씨는 차분하게 대처한다. 누가 이 '미소 천사'가 한때 불만 많고 절망에 빠진 주부였는지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녀는 어떻게 가족의 위기와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눈물을 흘리게 한 결혼 생활

현처양모가 되고 싶었던 최 씨는 결혼 초부터 시련을 겪었다. 처음에는 남편이 여윳돈으로 주식 투자했지만 결국 사업 자금까지 잃게 되었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남편은 주식 차트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의 설득도 소용없었다. 남편은 종종 술에 취해 폭언하기 일쑤였고 최 씨는 큰 압박을 받았다.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이라 소통할 방법이 없었어요. 가정 경제도 책임지지 않는 남편과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어린 딸과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딸이 좀 더 성장하고, 친정 부모님도 돌아가시면 그때 이혼하겠다며 자존심을 억눌렀습니다. 정말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인 2010년, 최 씨는 어머니가 힘없이 쓰러지는 꿈을 꾸었다. 혹시 묘지가 잘못된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M에게 함께 묘지를 보러 가자고 부탁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최 씨는 남편의 주정으로 가정생활이 힘들었다고 M에게 털어놓았고 M은 남편이 술을 끊게 할 방법이 있다며 작은 종이에 파룬따파 웹사이트(falundafa.org)를 적어줬다. 최 씨는 그 메모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인생의 등대를 찾다

몇 달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 씨는 병원에 취직했다. 어느 날 갑자기 메모가 생각나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진선인(真·善·忍), 무료 전수' 이 몇 글자가 그녀의 마음을 강타했다. 최 씨는 파룬따파(法轮大法) 수련이 매우 현실적으로 느껴졌고 수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M에게 파룬따파 서적 《전법륜(转法轮)》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전법륜》을 읽은 후, 최 씨는 자신이 평생 알고 싶었던 모든 것이 이 책에 담겨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책을 읽는 것을 멈출 수 없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법륜》을 읽었다.

근처 연공장에서 연공 동작을 배운 후 최 씨는 심신 변화를 느꼈다.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몸이 가벼워졌으며 아침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었고 걷는 것조차 봄바람이 귀를 스치는 것처럼 느껴졌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련 후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방황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이다.

"수련하기 전, 제 삶은 동력이 고갈되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몰랐어요. 마치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돛단배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련 후 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강해졌어요."

선(善)으로 가정과 직장의 위기 해결

2년 후, 최 씨의 남편은 그녀의 수련을 반대하며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고 심지어 두 번이나 법정에 갔다. 무책임하고 게으른 남편을 생각하면 원망과 증오심이 올라왔다. 그러나 그녀는 집착을 버리고 대법의 진선인 요구에 따라 심성을 수련하기로 결심했다.

"이혼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남편에 대한 원망도 버리기 시작했죠. 그러자 가정 상황은 차츰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진정으로 이런

사람 마음을 버렸을 때라야만 갈등이 사라지고 주변 환경이 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후 남편은 협심증에 걸렸다. 남편은 즉시 술과 담배를 끊었고 가족 관계가 화목해졌다. 우울해하던 딸도 다시 밝아지고 웃음을 되찾았으며 남편도 수련을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수련을 도와줬다.

2018년부터 국내 한 병원에서 간호주임으로 일하고 있는 최 씨는 병원의 많은 업무를 조율해야 했다. 한번은 새로 온 청소부가 그만두는 바람에 환자가 병원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계속 지적했다. 최 씨는 자신의 일을 잘하는 외에 화장실 청소와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직접 했다. 그녀는 "수련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하지 못했을 거예요. 병원 직원들도 제가 다른 간호주임과 다르다며 인정하시더군요"라고 말했다.

까다롭고 예민한 환자가 병원 직원의 잘못을 비난할 때도 최 씨는 긴장감 속에서도 차분하게 환자들의 비난을 경청했다. "우리가 개선할 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로 면담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가 저보고 이런 병원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 여기 병원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후 그 환자는 다른 사람과는 얘기

■ 《전법륜》을 읽고 있는 최경순 씨.

하지 않고 저를 찾아 면담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파룬따파를 수련한 지 13년째 접어든다는 최 씨는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찾아보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면 상황이 순조롭게 바뀐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로 저스스로 진실하고 거짓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설령 제게 좋지 않은 일이 되더라도 진실을 말합니다. 파룬따파는 제 인생의 등대이자 제가 가야 할 목표지점을 알려주는 운행좌표입니다. 사람에게 진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파룬따파뿐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경축

5.13
세계 파룬따파의 날

세계는 진선인(真·善·忍)이 필요하다

minghui.org

건강회복 | 도덕향상 | 반본귀진

파룬따파(法轮大法)는 세계 100여 개 나라에 전파되어 각 민족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
리훙쯔(李洪志) 대사와 파룬따파는 인류의 심신 건강에 대한 걸출한 공헌으로 국제적으로 표창장과 지지안, 서한 5700여 개를 받았다.
파룬따파의 주요저작 《전법륜(转法轮)》은 40여 개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에서 발행되고 있다. 《전법륜》은 사람을 선(善)으로 이끌어 심신 건강을 되찾고 경지를 승화하며 반본귀진(返本归真)에 이르게 하는 기이한 책이다.

인터넷 봉쇄를 돌파해 명혜망에 접속하는 것을 환영: www.minghui.org

청년 과학자 《전법륜》에 경탄

밍후이 기자 장후이닝(张慧宁) 취재 보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 과정으로 과학 연구에만 몰두했던 우거레이(吴格雷)는 책 한 권으로 심신 건강을 되찾고 반본귀진(返本归真)의 인생 여정을 시작했다.

실험실에 실험하고 있는 우거레이 박사.

영국의 카디프 대학은 탁월한 연구로 유명하다. 말레이시아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우거레이는 자신이 이 일류 대학의 과학자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또 이국땅에서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책, 《전법륜(转法轮)》을 만나게 될 줄은 더더욱 예상하지 못했다. 이 책은 유신론과 무신론 사이에서 갈등하던 이 젊은 과학자의 삶에 대한 모든 질문에 답을 주었고, 그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동년의 기억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내륙에 있는 인구 5천 명의 작은 마을 출신인 우거레이는 전형적인 말레이시아 화교 가정에서 자랐다. 그의 부모는 근면하고 성실한 화교로 아버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어머니는 주부였으며 두 누나가 있다.

어린 시절 우거레이는 아무런 근심걱정 없는 삶을 살았다. 그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사원에 가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신령에게 제물을 바치는 등 전통 풍습을 따랐다. 어렸을 때 우거레이는 이러한 풍습의 의미를 명확히 알지 못했지만 어떤 더 높은 힘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옥스퍼드에서 파룬궁을 만나다

우거레이는 좋은 학생이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는 다양한 것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고 대중 과학 서적을 많이 읽으면서 과학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됐다. 그의 가장 큰 관심은 유전학이었다.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거레이는 바다를 건너 영국 노팅엄 대학에 진학했다. 그의 근면한 천성과 연구 성과는 지도 교수의 관심을 끌었고 대학 졸업 후 영국 명문대학 중 하나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 과학자들은 인간 DNA 지도를 얻었고 이는 의학에서 유전자 치료의 대문을 열었으며 우거레이의 박사학위 논문인 '암 억제 유전자가 유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이 방향에서 탐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꿈에 가까워질수록 우 박사는 수년 전 자신을 행동에 옮기게 했던 그 에너지를 점점 느끼지 못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원대한 포부는 매일 반복되는 실험과 서류 작업, 경쟁과 직장 내 암투에 지쳐갔고, 심신의 에너지도 함께 소진되어 갔다.

우 박사는 회상했다. "당시 저는 정말 '적자생존'의 사고방식을 따랐습니다. 항상 1등이 되어야 했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까 봐 항상 두려웠어요. 다른 사람의 성적이나 실험 결과가 저보다 좋으면 질투심이 생기고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기간 우 박사는 종종 다른 사람이 자신의 실험 결과를 훔쳐 갈까 봐 걱정하며 "삶이 피곤하고 즐겁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그의 심신에 큰 타격을 주었고 그는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겨 늘 복부 팽만감과 복통을 겪었다.

《전법륜》으로 등잔불이 켜지다

어느 날 우 박사는 옥스퍼드 공공도서관에서 중국어 《대기원시보》를 발견하고 즉시 친숙한 언어에 매료되

■ 파룬궁 제5장 공법 선퉁쟈츠파(神通加持法)를 연마하고 있는 우거레이.

었다. (참고: 많은 말레이시아계 중국인들이 중국어 학교에 다님) 그날부터 우거레이는 《대기원시보》의 열렬한 독자가 되어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와 파룬궁(法轮功) 수련을 통해 육체적 건강과 도덕적 승화를 이룬 많은 사람에 대해 알게 됐다.

2004년 우 박사는 소화기 질환이 점점 악화되자 파룬궁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 그해 11월, 그는 파룬궁의 주요 저서인 《전법륜》을 읽기 시작했다. 통속적이고 간결한 언어에도 불구하고 우거레이는 이 책이 주는 메시지가 매우 심오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회상했다. "저에게 인상 깊었던 것은 사부님께서 과학 용어를 사용해 수련을 명백히 논술하셨고 현대 과학과 인간 과학으로 심오한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부님께서는 덕과 업은 물질 형태로 사람의 다른 공간의 신체에 존재한다고 말씀하셨고, 덕과 업력의 전화 관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부님께서는 과학적 관점에서 기공 수련 중 인체의 변화를 설명하시고 생명의 본성은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우 박사는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은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으며 선천적인 선량한 본성으로 돌아가 타인에게 친절하고 그들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말했다.

《전법륜》을 읽은 후 우거레이는 머리에 등잔불이 하나 켜진 것 같았고, 완전히 대립적이라고 인식한 세계의 양면(물질과 정신)을 연결해줬다. 그는 자신이 줄곧 찾던 것을 찾았다는 강한 직감을 느꼈다.

그 후 우 박사는 인터넷에서 리훙쯔 대사의 연공을 가르치는 동영상을 찾아 파룬궁 5가지 공법을 배웠다. 그는 또 목마른 듯이 리훙쯔 대사의 다른 저작도 읽었다. 2005년 1월, 그는 옥스퍼드 대학의 파룬궁 연공장에 연락해 2007년 박사학위를 받고 옥스퍼드를 떠날 때까지 매주 수련생들과 함께 법공부하고 연공했다.

무사(无私), 더 아름다운 인생 성취

유전학자에게 생명의 기본 단위는 DNA 속의 유전자라고 우 박사는 말했다. 반면 리훙쯔 사부님은 "덕과 업력과 같이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더 근본적이고 미시적인 것들이 있다"고 밝혔다.

"저는 개인 이익을 위해 싸우기를 좋아하는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이고 자비로운 존재가 됐으며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득실에 시달리고 동료들을 의심하던 청년이 수련 후 동료를 배려하는 법을 배웠고,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자신의 실험이 다른 사람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지 생각했다. "지금은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항상 타인을 먼저 생각하려고 노력하기에 가족 및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 박사가 연공을 시작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괴롭히던 소화기 장애가 사라졌다. 직장에서 그는 더 나은 연구 결과를 얻었다. 2023년 그는 신경질환의 유전체 안정성을 연구하기 위해 거의 200만 파운드의 권위 있는 연구 장학금을 받았다.

우 박사는 지금 더욱 즐겁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수련법을 공유하기 위해 옥스퍼드 대학교에 '파룬궁의 친구들' 동아리를 설립하고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기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우 박사는 "이것은 가장 훌륭한 수련법입니다. 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수련을 통해 큰 수혜를 입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파룬궁에 호기심이 있거나 관심 있는 사람에게 우 박사는 "중국공산당의 선전에 믿지 말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 자신에게 최고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라고 조언한다.

청나라 이야기 곱사등 치료의 '밀방'

■ 쥔쩌(君泽)

아래는 청나라 증연동(曾衍东)의 작품 '소두붕(小豆棚)'에 나오는 이야기로 '머리 위 석 자 되는 곳에 천지신명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에 탄복하게 된다. 사람의 일사일념에 대해 천지신명은 아주 조그만 부분도 훤히 보고 계신다. 이야기 속에서 인과응보의 현묘함은 더욱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금곱사가 계략에 빠져 기름진 땅을 잃다

청나라 소주(蘇州) 오중(吳中)에는 금(金)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등이 활처럼 구부러져 있어 사람들은 그를 '금곱사'라고 불렀고, 또 그에게는 가뭄과 홍수에도 수확을 보장하는 좋은 밭 20무가 있어 '금원보(金元寶)'라는 별명으로도 불렀다.

그 지역에 부유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 있었는데 금 씨의 밭을 탐내며 몇 차례나 팔라고 했는데 금 씨는 팔지 않았다. 이 사람은 관아와 결탁해 소송을 걸어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했으며, 결국 시가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에 사들였다. 금 씨는 소송을 하느라 결국 빈털터리가 됐다. 재산을 탕진하게 된 사연을 알게 된 금 씨는 벌컥 화를 내며 돌아와 칼을 갈아서 남몰래 몸에 지니고 다녔고, 나중에 그를 만나면 죽이려고 했다.

복수를 내려놓은 후의 기이한 만남

어느 날 그 사람이 사돈집에 술을 마시러 간 것을 알게 된 금 씨는 어둠을 틈타 길옆 처마 밑에 숨어 있다가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 찔러 죽이려 했다. 기다리던 중 생각해봤다. '내 재산을 노린 그는 이미 양심을 버린 것이다. 내가 그를 죽여 복수했다 한들 재산을 되찾을 수 없을뿐더러 헛되이 목숨만 잃게 될 것이다. 결국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이를 깨닫게 된 금 씨는 복수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칼을 강물에 던졌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돌다리를 지날 때 문득 누군가 "금원보가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누가 자신의 별명을 부르는지 확인하려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넘어졌고, 또 한 사람이 두 개의 판자를 들고 와서 판자 사이에 그를 끼워 넣어 묶은 다음 힘껏 눌렀다. 금 씨는 자신의 등뼈가 부서질 것 같은 고통에 의식을 잃었다.

그런데 깨어나자 굽은 등이 감쪽같이 펴진 것을 발견했다. 그는 신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고 즉시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아내가 문을 열어보니 곱사등이였던 남편이 가슴을 곧게 편 훤칠하고 당당한 사나이로 바뀐 것을 보았다. 기쁘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등이 펴진 진실한 내용을 감추고 그저 곱사등을 치료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고만 말했다.

곱사등이 펴진 '밀방'을 알리다

몇 개월 후 그의 밭을 빼앗아간 사람이 문득 찾아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주고 갔다. 이튿날 그가 또 찾아와 자기 집에 손님으로 와달라고 간청했다. 그 후 이 사람은 금 씨에게 "당신의 곱사등이 펴졌는데 가르침을 청하오."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었다.

이 사람은 쉰이 넘어서 예쁘고 귀엽게 생긴 아들을 얻어 목숨처럼 아끼고 있었다. 그런데 이 일곱 살짜리 귀염둥이 아들이 얼마 전 장난을 치다가 병풍에서 떨어져 등이 굽고 만 것이다. 이 사람은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금 씨에게 비방을 요청했고 도와주면 금 백 냥으로 사례하겠다고 했다.

이야기를 듣고 그가 자신을 해친 업보를 받고 있음을 알게 된 금 씨는 하늘을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돈이 적다면 더 주겠다고 했다. 그제야 금 씨는 그에게 "남의 재물을 함부로 빼앗으면 허리가 굽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 사람은 의아해하며 왜 우느냐고 묻자 금 씨는 울음을 그치고 당시 상황을 낱낱이 들려줬다. 두 사람이 날짜를 따져보니 그 사람의 아들이 넘어져 등이 굽은 그날 밤이 바로 금 씨가 복수를 포기하고 신에 의해 등이 치유된 밤이었다!

귀염둥이 아들이 곱사등이 된 것이 자신의 악행이 불러온 업보임을 깨닫게 된 이 사람은 뼈저리게 뉘우치며 울면서 참회했다. 이튿날 이 사람은 금 씨 부부를 집으로 다시 초대해 정성껏 모시며 사죄했고 밭을 원래대로 돌려줬다. 그가 이 일을 끝내자 아들의 곱사등은 약을 먹지 않고도 나았다.

‘청군입옹(請君入甕)’ 고사를 기억해야

글/ 루쥔(鲁钧, 중국)

주지하다시피 당나라 측천무후는 반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 밀고를 장려했다. 당시 득세한 두 명의 가혹한 관리인 주흥(周興)과 내준신(來俊臣)은 밀고된 사람들을 잔인하게 고문해 없는 죄도 인정하게 만들면서 많은 황족과 충신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혹독한 관리의 자업자득

하루는 내준신이 주흥에게 물었다. “만약 모든 고문을 다 들이댔는데도 죄수가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흥은 이렇게 대답했다. “큰 항아리 밑에 숯불을 피워 놓고 그 속에 집어넣으면 자백하지 않겠습니까?”

내준신은 즉시 그의 말대로 큰 항아리를 가져다 불을 때게 했다. 그리고는 주흥에게 밀고됐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달궈진 독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주흥은 자신이 고안한 고문에 자신이 당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이것이 ‘그대가 항아리 안으로 들어가시오’라는 뜻의 ‘청군입옹(請君入甕)’이란 고사가 전해지게 된 유래다.

현재의 혹형과 가혹한 관리

지난 20여 년간 중공은 파룬궁 수련생 진선인(真·善·忍) 신앙을 박해하는데 백여 가지나 되는 혹형을 사용했다. 혹독하게 때리기, 전기고문, 불로 지지기, 얼음 고문, 수갑 채우기, 달아매기, 성폭력, 비인간적 음식물 주입하기, 호랑이 의자, 장시간 수면박탈, 독극물 주사 등이 있었다. 심지어 생체 장기 적출까지 감행했다.

옛날부터 혹형 기구를 발명한 사람은 좋은 결과가 없었다.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탐관 중에 저우융캉(周永康), 보시라이(薄熙来), 왕리쥔(王立军), 쉬차이허우(徐才厚) 및 많은 경찰과 ‘610’ 두목은 모두 악보(恶报)를 받았다. 현재 그들이 받은 악보는 표면상 파룬궁을 박해한 것으로 죄를 물은 것이 아니다. 아마도 하늘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깨우칠 시간을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경찰은 수시로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할 때 ‘때려죽여도 문제없고, 때리다 죽으면 자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많은 악한 경찰이 사람을 괴롭히는 혹형을 생각해냈다. 그리고 중공은 박해할 때 정책은 서류상으로 남기지 않고 말로 전달해 증거를 남기지 않았고 공무원이 일을 집행할 때 종신 책임제라는 정책을 만들었다. 거기에는 ‘공무원이 틀린 정책을 집행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법률이 들어가 있다. 중공은 역대로 가루를 다 빻고 나면 당나귀를 죽이는 방식을 채용하는데 경찰들은 수시로 희생양이 되어 항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다른 방면으로 보면 ‘관공서에 있으면 수행하기가 좋다.’ 만약 공안, 검찰, 법원 사람들이 양심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 좋은 사람을 보호한다면 그 작은 선행도 신들에게 기록되어 자신과 자손에게 복을 가져다줄 것이다.

중국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합법이다

첫째, 중국 헌법에 국민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둘째, 공안부에서 정한 14가지 사교(핸드폰으로 검색가능) 중에 파룬궁은 없다.셋째, 파룬궁 서적은 합법 간행물이다. 2011년 국무원신문출판사 제50호 문서에는 제5차 규범성 문건의 결정을 폐지한다고 했다. 이것은 1999년 발표한 파룬궁 출판물에 대한 금지를 명확하게 폐지한 것이다.(핸드폰으로 검색 가능)

문광통(文广通)의 신선 동굴 여행

■글/ 샤오거(萧戈)

'태평광기'에는 남조(南朝)의 송문제(宋文帝) 원가 26년(기원 449년)에 진계(辰溪)현 등(滕)촌에 문광통(文廣通)이라는 남자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루는 멧돼지 한 마리가 문광통의 밭에 들어갔다. 문광통이 활을 쏘자 멧돼지는 상처를 입고 도망쳤다. 그는 멧돼지를 쫓아 깊은 동굴에 들어갔다. 삼백 보 넘게 걷자 갑자기 앞이 밝아지더니 수백 호가 사는 마을이 나타났다.

그리고 한 어르신이 나오더니 물었다. "자네가 나의 돼지를 쏜 사람인가?" 문광통은 "그 돼지가 밭에 있는 곡물을 먹어서 제가 쏜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해치려 한 게 아닙니다." 그러자 어르신이 "소가 남의 작물을 밟는 것도 옳지 않지만, 이를 핑계로 다른 사람의 소를 통째로 앗아가는 것은 더욱 옳지 않은 일이네"라고 말했다.

문광통이 잘못을 깨닫고 즉시 머리 숙여 사과했다. 어르신은 "잘못을 알고 고칠 수 있다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네. 이 돼지는 운명 중에 이번의 응보를 받아야 했으니 자네는 사죄할 필요가 없네."라고 말했다.

문광통이 노인의 초대를 받고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안에는 10여 명의 서생이 있었는데, 모두 머리에 장보관(章甫冠: 유생이 쓰는 관)을 쓰고 있었고 넓은 소매의 홑옷을 입고 있었다. 한 학자가 침상에 앉아 남쪽을 바라보며 '노자(老子)'를 강의하고 있었다. 한 동자가 술안주를 내오자 노인은 문광통을 끌고 함께 술을 마시며 즐겼다.

문광통이 행인들을 바라보니 바깥세상과 다를 바 없었지만 환경이 그윽하고 아름다워 정말 신선이 사는 무릉도원 같았다. 그는 그곳에 남고 싶었지만 노인은 허락하지 않았으며 한 동자에게 그를 데리고 떠나게 했다.

문광통은 동자에게 물었다. "이곳은 도대체 어디냐?" 동자는 말했다. "집안의 서생들은 모두 현인이십니다. 그분들은 처음에는 폭군인 하나라 걸왕(기원전 1600년)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곳에 오셨다가 도를 배워 신선이 되셨습니다. '노자'를 강의하신 그분이 바로 하상공(河上公: 한나라 때 사람으로 노자의 주석을 달았음)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한나라 산양군(山陽郡) 사람으로 왕보사(王輔嗣: 왕필, 한나라 말기 삼국시대 사람으로 역시 노자의 주석을 달았음)입니다. 하상공께 '노자' 중의 일부 의문점을 묻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이미 하상공의 문하생으로 120년간 바닥 쓰는 하인으로 일했는데, 이제 겨우 저를 문지기로 삼으셨으니 어느 세월에 도경(道經)의 비결을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동굴 입구에 이르자 문광통은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떠나기 아쉬워하며 왕보사에게 거듭 작별을 고했다.

문광통이 동굴 밖으로 나오자 자신의 화살이 부식되어 이상하게 생각했다. 마을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신선 동굴 속에서 잠시 머물던 시간 동안 바깥세상은 이미 12년이나 지나갔던 것이다. 집에서는 일찍이 그의 장례를 치른 뒤였다.

다음 날 문광통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시 그 신선 동굴의 위치를 찾아가 보았지만, 큰 바위 하나가 동굴 입구를 막고 있어서 아무리 해도 뚫을 수 없었다.

중국 전통문화에는 '동굴 속에서 막 하루가 지났는데 세상에서는 이미 천년이 지났다(洞中方一日, 世上已千年)'라는 뜻의 '동천[洞天: 동굴 속 세상]'이라는 말이 있다. 명산대천에 있는 동굴은 청정해 흔히 수련해 득도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고서에는 중국인의 시조 황제(黃帝)가 공동산(崆峒山)에서 광성자(廣成子)에게 도(道)를 물어 수련 문화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송나라 때 공식 편찬된 '태평광기(太平廣記)'에 문광통의 이야기 외에도 계허(契虛), 배씨자(裴氏子), 왕여(王畬), 음은객(阴隐客), 채약민(採药民), 최위(崔炜), 이구(李球), 허서암(许栖岩) 등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됐고 이들은 모두 수련하여 득도한 고인을 만나 인생의 참뜻과 반본귀진(返本归真)의 길에 대한 점화를 받았다고 한다.

신께서는 종래로 우리를 떠난 적 없다

■ 글/ 수전(淑珍, 중국 지린성)

나는 무신론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자랐지만, 신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해 알고 있다.

어머니가 '부뚜막 신' 이야기를 하다

어렸을 때 어머니는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할 때의 경험을 자주 들려주셨다. 어머니는 당시 마차를 빌려 모든 가산을 싣고 고향을 떠나셨다. 그런데 집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사하면서 왜 나만 집에 두고 가느냐"라는 소리가 들려서 매우 의아하게 여기며 아버지께 빠뜨린 게 없냐고 물어보셨다. 아버지는 빠뜨리지 않았다며 가던 길을 재촉하셨다.

어머니는 잠시 후 또 같은 소리를 들으셨다. 어머니는 아버지께 "뭔가 빠뜨린 게 틀림없어요"라며 마차 주인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돌아가서 아버지는 몇 번이고 안팎을 살펴보시다가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셨다. 막 다시 떠나려 할 때 부뚜막 위의 '조왕신(灶王神)' 초상화가 떠오른 어머니는 '조왕신'을 빠뜨렸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하며 초상화를 잘 간직하신 후에야 다시 길을 떠나셨다.

나는 이 그림이 우리 집 부엌 위에 항상 모셔 있고, 어머니가 항상 그 앞에서 공양하시던 기억이 생생하다. 1950~1960년대 이른바 '대기근' 때 어머니는 우리 집에 식량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모두 '조왕신'이 보호해 주신 덕분이라고 하셨다. 이후 문화대혁명 기간에 '4가지 낡은 것을 타파하자'는 운동 때문에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조왕신' 초상화를 내리셨다.

암암리에 신이 보호해주다

1980년대 나는 복장공장을 도급 맡았다. 장사하는 과정에 여러 차례 위험이 있었으나 암암리에 신의 보호로 무사했다. 아래에 두 가지 일을 예로 들겠다.

한 번은 1988년 여름에 나는 동생과 함께 랴오닝 시류(西柳) 도매시장으로 가려고 했다. 기차표를 끊었는데 좌석은 13번째 객차, 즉 뒤에서 세 번째 객차였다. 동생이 새로 산 자전거를 타고 내가 뒤에 앉아 기차역으로 가는데 백 미터쯤 갔을 때 내가 앉은 데가 부러져 나는 땅에 내동댕이쳐졌다.

순간, 어젯밤 꿈에서 내가 앉은 비행기가 추락하던 것이 생각났다. 나는 불길하다고 생각되어 동생에게 가지 말자고 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우리가 타려고 하던 기차의 뒤로 세 번째 객차가 탈선하여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방송됐다. 어머니는 "이것은 신께서 보호해주신 것이다!"라고 하셨다.

두 번째는 1989년 가을이다. 나와 동생은 복장 재료를 사려고 버스를 탔다. 그런데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멀미가 심해 동생이 나를 부축해 내리는 수밖에 없었다.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탈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며칠 후 우리가 타려고 했던 버스가 강도를 만나 사람들이 재물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우리가 탔더라면 재료를 사려고 가진 20만 위안을 잃었을 것이다.

이런 일들로 신은 우리 곁에 있으며 암암리에서 줄곧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것을 믿게 됐다!

혜안으로 가짜뉴스 분별

2001년 섣달그믐날 천안문광장에서 발생한 '분신자살'은 허점투성이다. 여기서 두 가지 예만 들겠다.

새것처럼 파란 사이다병

영상을 보면 자살자 왕진둥(王进东)의 얼굴과 옷은 불에 탔지만, 다리 사이에 놓인 사이다병은 새것처럼 파랬다. 불에 쉽게 타는 머리카락도 온전했다.(사진과 같음)

어떤 사람이 실험했는데 휘발유를 담은 페트병에 불을 붙여 5초가 지나면 병이 말랑해지고 7초가 지나면 변형되며 10초가 지나면 완전히 쪼그라든다고 했다. 왕진둥의 다리 사이에 놓인 병은 특수하게 제작되었는가?

톈안먼은 '가장 큰 촬영소'

분신한 지 2분도 되지 않아 불이 꺼졌다. 그러나 세 곳에서 클로즈업으로 촬영되었다. 왕진둥, 류춘링(刘春玲), 류쓰잉(刘思颖)에 대한 클로즈업은 사전에 기획하고 촬영해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연예계 인사는 농담으로 천안문은 '가장 큰 촬영소'라고 말했다.

파룬궁 창시자 리훙쯔 대사는 저서에서 명시했다. "연공인은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 "살생은 죄를 짓는 것이다." 《전법륜(转法轮)》을 한 번이라도 읽었다면 중공의 거짓말을 간파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천안문 분신자살은 중공이 파룬궁을 모함하기 위한 사기극이라고 했다.

1999년 4월 25일 1만 명의 파룬궁수련자들이 평화적으로 청원했다. 그들은 묵묵히 인도에서 있었다. 교통도 방해하지 않았고 표어나 구호도 없었다. 오직 헌법이 부여한 신앙 자유와 합법적인 연공 환경을 원할 뿐이었다.

선량함을 유지

작가: 밍웨(明月)

만 명 '4.25' 청원 24주년을 기념하며

얻기 힘든 책이 금지됐을 때 그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그에게
건강과 마음의 평화, 경지의 제고를 주었다고 말했다.

무고한 사람들이 잡히고 구타를 당할 때 그는 그들을 위해
좋은 사람들은 신앙을 견지할 권리가 있고
전생과 내생은 허황한 것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연공이 죄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자신에게 묻는다.
진선인(真善忍)이 박해받을 때 사람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지선(至善)의 진리는 모두가 지켜야 하지 않는가?

나는 가끔 일의 자초지종이 떠오르나 남들과 다투지 않는다.
염원은 사람마다 마음에서 나온다.
세간이 어지러워도 선량한 사람은 진상을 똑똑히 볼 수 있다.

회화: 산간마을에 찾아온 복
작가: 경윈(耕韵), 칭경(晴耕)

황금씨앗을 뿌리니 오곡향이 집집에서 흘러나와 즐겁고
선량한 사람은 큰 복이 따라 만사가 흥하리라

봉쇄돌파 프로그램을 얻는 방법

PC 버전: https://j.mp/fgp88

안드로이드 VPN: https://j.mp/fgv88

주의사항: 국산 브라우저에서는 위의 링크가 열리지 않을 수 있기에 IE, Edge, Chrome 혹은 Firefox 등 브라우저를 이용하기 바란다.